

# 開化知識人 尹致昊의 사상과 활동

유 영 렬\*

## 목 차

- I. 머리말
- II. 개화사상의 형성과정
- III. 개화기의 개혁활동
- IV. 일제시대의 사회활동
- V. 맺음말
- 참고문헌
- 〈後 記〉

## I. 머리말

윤치호(1965~1945)는 우리 나라 개화기의 격동하는 시기를 대표하는 근대적 지식인, 민중운동의 지도자, 민권운동의 지도자였다. 일제통치하의 암울했던 시기에는 기독교 지도자, 교육 운동가, 사회 사업가로서 활동했다. 그러나 그는 일제 말기에 일본세력과 밀착하여 친일 협력자로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개화기와 일제시대의 긴 기간에 걸쳐 민족운동에 노력한 윤치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 글은 윤치호의 개화사상의 형성과정과 개화기의 개혁활동, 그리고 일제시대의 사회활동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 숭실대 사학과 교수

## II. 개화사상의 형성과정

윤치호는 5세에서 16세까지 고급 문관이 되기 위한 전통적인 유교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개화성향을 가진 부친 尹雄烈의 관심 속에서 17세 되던 1881년에 유길준·유정수와 함께 신사유람단 어윤중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유학함으로써 근대교육을 접하게 되었다. 유길준과 유정수는 慶應義塾에 입학했고 윤치호는 同人社에 입학하여 최초의 동경 유학생이 되었다. 동인사는 일본의 저명한 문명개화론자 中村正直이 경영하는 중등과정의 근대학교였다.<sup>1)</sup>

윤치호는 약 2년간의 일본유학 기간에 주로 일본어와 영어 공부에 힘썼고, 당시 일본 최고의 문명개화론자인 福沢諭吉과 中村正直으로부터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다. 한편 그는 당시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옥균·서광범 등 다수의 개화인사들과 교제하고 개화당 인사들과 동지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가 영어를 배우게 된 것도 “일본말만 배우지 말고 영어를 배워야 일본을 경유치 않고 태서(=서양) 문명을 직수입할 수 있다”는 김옥균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sup>2)</sup>

윤치호는 일본의 발전상을 체험하는 가운데 明治維新을 모델로 하는 조국의 개화·개혁을 구상했다. 그는 귀국 후 高宗에게,

“청국은 사람이 많고 땅의 크기가 일본의 11배나 되지만, 일본이 30여 년의 개혁으로 문명부강을 이룬 것이 60여 년 의국과 통상한 청국보다 백 배나 낫습니다. 그 이유는 청국은 옛 것만 지키고 일본은 옛 것을 고치고 새 것을 본받은 까닭입니다.”<sup>3)</sup>

라고 하여, 일본식의 개혁을 건의한 바 있다. 일본유학을 통하여 개화사상을 수용함으로써 그의 의식은 전통사상에서 근대사상으로 전환하게 되었던 것이다.

윤치호는 일본유학 도중 19세가 되는 1883년 초에 초대 주한미국공사 푸트(Lucius H. Foote)의 통역으로 발탁되어 귀국하게 되었다. 그가 일본에서 4개월 정도 배운 영어 실력으로 통역하기는 무리였으므로, 처음 3개월간은 일본인 통역이 일어로 통역한 것을 윤치호가 우리말로 통역하는 삼각통역을 했다. 그러므로 그는

1) 김영희, 『좌옹윤치호선생약전』(좌옹윤치호문화사업회, 1999) 45~51면 참조.

2) 尹致昊, 「風雨20年-韓末政客의 橫古談」 『동아일보』 1930년 1월 11일자 참조.

3) 『尹致昊漢文日記』 1884년 7월 22일조.

아예 미국공사관에 기거하면서 영어공부에 전념했다.

윤치호는 귀국 후, 1년 8개월간 푸트공사의 통역으로, 개화당의 일원으로, 그리고 외아문의 주사로서 국왕과 개화당과 푸트공사 사이에서 ‘파이프 라인’의 역할을 하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개화자강을 모색했다. 조국의 자주독립과 개화자강이라는 동일한 이상을 가졌으나, 김옥균·박영효 등이 급진적 방법을 택하여 갑신정변을 일으킨 반면, 윤치호는 정변이 성공 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일이라 판단하고<sup>4)</sup> 점진적 개혁노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뒤, 윤치호는 정변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개화당의 일원이었으므로 국내에 머물기가 곤란했다. 그러므로 그는 중국 上海로 망명하여 기독교 대학인 中西書院(Anglo-Chinese College)에 입학했다. 그의 체계적인 근대 교육은 사실상 중국유학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는 중서서원에서 3년 6개월간 수학하고, 미국에 건너가 밴더빌트 대학과 에모리 대학에서 5년간 수학했다.

윤치호는 중국유학과 미국유학 기간에 영어·중국어·역사·지리 등 인문학 관계의 과목, 신학·교회사·설교학·설교사 등의 기독교선교 관계의 과목, 경제론·헌법사·정치경제학 등의 사회과학 관계의 과목을 포괄하는 광범한 근대학문을 섭렵했고, 역사서적·문학작품·종교서적을 탐독했다. 그가 특히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쏟은 분야는 영어·역사·문학이었다. 이것은 서구 근대문명과 근대정신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그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sup>5)</sup>

윤치호의 중국·미국유학기의 교육은 모두 기독교대학에서 선교교육자들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 그는 상해유학 시절에 조선 최초로 남감리교 세례교인이 되었다. 기독교의 수용은 윤치호의 생애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것은 세속적 쾌락으로부터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었으며, 자기 중심의 정의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정의를 추구하는 가치관의 일대 전환이었다.<sup>6)</sup> 그의 기독교신앙에 대한 열정은 그로 하여금 밴더빌트 대학에서 신학을

4) 『尹致昊漢文日記』 1884년 12월 6일조 참조. 윤치호 부자는 갑신정변은 ① 위로는 君父母를 거역하고 그 원한을 샀으며, 아래로는 민심을 거슬러 인심이 불복한다. ② 외세의존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며, 다수의 청국군이 곧 개입하게 되면 소수의 일본군은 당해낼 수 없다. ③ 개화당은 소수이고 다른 정치세력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패한다고 보았다.

5) 柳永烈, 『開化期の尹致昊研究』 (한길사, 1985) 70-72면 참조.

6) Tchi-ho Yun(이하 T. H. Yun이라 약함), "A Synopsis of What I Was and What I Am" Lak-Geoon George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116면.

전공하게까지 했으나, 그 자신은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평신도로서 하나님과 조국에 봉사하는 인간이 되고자 했다.

윤치호는 일본·중국·미국유학을 통하여, 중국은 악취 풍기는 불결한 나라, 낙후된 무기력한 나라, 완고하고 오만한 나라, 그리고 조선의 자주와 개화를 방해하는 나라라고 인식했다. 반면에 일본은 그 환경과 인민이 청결한 나라, 힘차게 발전하는 동양의 문명국가, 그리고 조선의 자주와 개화를 위한 모델국가라고 인식했다. 한편 미국은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 기독교윤리에 기초한 나라, 그러나 인종차별이 극심한 '백인을 위한 백인의 국가'라고 인식했다.<sup>7)</sup>

윤치호는 중국·미국유학 시기에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弱肉強食·適者生存의 국제사회에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 強者·適者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부강과 독립을 의미하는 서구적 문명사회를 조선이 나아가야 할 개화의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 그는 서양의 문명사회는 강자이고 동양의 비문명사회는 약자로 인식하여, 서양적 모델에 따른 문명화가 강자 곧 적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sup>8)</sup> 그리고 그는 민주주의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이념이라고 생각하고, 인권·민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를 조선이 나아가야 할 개화의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 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장 좋은 정부형태"라고 생각할 정도로 민주주의 신봉자였던 것이다.<sup>9)</sup> 또한 그는 기독교를 개인의 구원은 물론, 약자인 조선을 강자·적자로 만들 수 있는 사회변혁의 윤리로 인식하고, 기독교사회를 조선이 나아가야 할 개화의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 그는 기독교를 서양의 문명부강과 자유민주주의를 창출시킨 힘의 종교, 강자의 종교, 가장 우월한 종교로 생각했던 것이다.<sup>10)</sup>

한편 윤치호는 1890년대 초 미국유학 시기에 조국이 중국의 간섭을 받으며 개화의 길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자주개혁' 또는 '내부혁명'이 조선사회의 근대변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의 두 가지 방법은 현실적

7) 앞의 『開化期の尹致昊研究』 65-69면, 75-82면 참조.

8) "T. H. Yun's Letter to Anonymous Person," June 5, 1885; *T. H. Yun's Diary* November 27, 1894 참조.

9) *T. H. Yun's Diary*, September 24, 1893 참조. "Yet no one will deny that the democracy of America is after all the best form of government in spite of its defects.

10) *T. H. Yun's Diary*, September 24, 1893; March 9, 1894; March 30, 1889 참조.

11) *T. H. Yun's Diary*, May 18, 1890; "T. H. Yun's Letter to Dr. Young J. Allen," January 24, 1891 참조.

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당시 최악의 상태로 생각되는 ‘현상 유지’와 가능성이 있는 ‘중국에의 예속’을 탈피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 ‘문명국 지배하의 개혁’을 생각하기도 했다.<sup>11)</sup> 윤치호는 갑신정변 이후 국내에서 개화세력이 완전히 도태되고, 백성들이 전 근대적 압제와 수탈에 시달리는 비참한 상태에서, 청국의 야만적인 지배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러시아 특히 영국 같은 문명국가의 지배를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다.<sup>12)</sup>

### III. 개화기의 개혁활동

윤치호는 1895년 2월, 31세가 되던 해에 망명유학 10년만에 근대적 지식인, 독립한 기독교인이 되어 귀국했다. 그의 귀국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김홍집내각이 성립되고, 갑신정변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조치가 취해짐으로써 가능해졌다. 그는 귀국에 앞서, 귀국하게 되면 선교·교육을 통하여 민중을 계몽하는 일, 또는 관직을 갖는 경우에는 學部에서 교육을 진흥하는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sup>13)</sup>

윤치호의 귀국 당시, 국내의 정계는 제2차 김홍집내각 곧 김홍집·김윤식 등 旧黨과 박영효·서광범 등 新黨의 연립내각이 구성되어 서로 대립상태를 보였다.<sup>14)</sup> 그는 신·구 양당의 조정역할을 해달라는 김홍집 총리대신의 요청과 井上馨 일본공사의 권고를 받아 내각 비서관의 일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박영효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는 학부협관(=교육부 차관)으로 활동했다.

윤치호의 본격적인 근대개혁 활동은 독립협회를 통하여 전개되었다. 1896년 고종의 이관파천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세력이 약화되고 러시아세력이 강화되었으나, 대체로 열강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졌다. 이 무렵 서재필이 미국 망명에서 귀국하여, “국민의 힘으로 자주독립의 완전한 국가를 만들려는” 목적 하에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창립했다. (1896. 7) 그 무렵 윤치호는 민영환을 수행하여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고, 중국 상해를 다녀왔다.

윤치호는 귀국 후 1897년 7월부터 독립협회에 참가했다. 그때 그의 눈에 비친 독

12) T. H. Yun's Diary, June 20·25, 1885; September 9, 1886; October 11, 1889; May 18, 1890 참조.

13) T. H. Yun's Diary, December 27, 1894 참조.

14) 여기서 旧黨이라 함은 김홍집·김윤식·유길준 등 갑오개혁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갑신정변 당시의 온건개화파를 말하며, 新黨이라 함은 박영효·서광범 등 제 2차 개혁부터 참여한 갑신정변 당시의 급진개화파를 말한다.

립협회는 이완용과 · 대원군과 · 러시아파 · 일본파 · 근왕파 등 각종 정파가 뒤섞여 同床異夢하는 쓸모 없는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독립협회의 고문이며 실질적인 지도자인 서재필에게 제의하여 독립협회에 토론회를 도입하게 했다. 독립협회 토론회는 회원과 민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당면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회원들에게 대중연설의 훈련 기회를 주었으며, 민중을 독립협회에 참여케 하여 독립협회를 민중적 단체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sup>15)</sup>

1898년에 이르러 러시아의 내정간섭이 강화되고, 열강의 이권침탈이 심해졌으며, 친러수구정권이 외세 의존적 자세를 취하여 대한제국의 각종 이권과 자주권이 크게 손상되었다. 이에 그해 2월 21일 독립협회 회원 135명이 독립관에 모여, 윤치호의 제의에 따라, “밖으로는 외국의 수중에 있는 재정권과 군사권 및 인사권을 되찾고, 안으로는 법률장정을 준행하여 국권을 자주하라”는 내용의 구국선언을 상소 형식으로 행했다.<sup>16)</sup> 독립협회의 구국선언에 대하여 독립신문은 “이들 백여 명이 맹세한 것은 나라에 힘있기가 철갑선이나 몇 여단 되는 군사에 비유할 일이 아닐러라”고 하고, 개국 500년에 처음 있는 획기적인 사실로 기록했다.<sup>17)</sup>

이어서 3월 10일에 독립협회는 종로 네거리에 1만여 명의 민중을 동원하여 역사적인 萬民共同회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즉시 돌려보내고, 大韓의 자주권을 지키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sup>18)</sup>

이 만민공동회는 개화운동과 민중과의 최초의 결합을 의미하며, 우리 나라에 있어 근대적 민중운동의 효시였다. 독립협회와 민중의 지속적인 압력에 의하여 정부는 러시아와 교섭하여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철수시키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대적 민중운동, 민주적 정치운동의 최초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재필은 이 사실을 ‘民意의 승리’라고 평가했다.<sup>19)</sup>

그리고 러시아가 일본의 선례를 들어 석탄고 설치를 구실로 정부에 절영도조차를 요구해 오자, 독립협회는 일본의 석탄고 철거까지 주장하여 러시아의 요구를 좌절

15) 앞의 『開化期の尹致昊研究』 106-107면 참조.

16) 『承政院日記』 光武 2년 2월 22일조 참조.

17) 『독립신문』 1898년 2월 22일자.

18) T. H. Yun's Diary, March 10, 13, 15, 1898 참조.

19) Frederick A.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Reprinted by Yonsei University Press, 1969, 70면 참조. 서재필은 러시아 군사교관의 철수에 대하여 “This was done, and the will of the people was triumphant.” 라고 했다.

시켰다. 이 무렵 1898년 3월에 독립협회 회장 이완용이 전라북도 관찰사로 전직하게 되어, 윤치호는 회장대리로서 독립협회의 실질적인 대표가 되었다. 1898년 5월에 서재필이 미국으로 추방되자, 윤치호는 독립신문의 주필이 되고 독립협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국권운동과 민권운동을 총 지휘하게 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4세였다.

윤치호 지도하의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군사기지 설치를 위한 목포·진남포 일대의 매도요구와 프랑스의 광산채굴권 요구를 좌절시켰다. 나아가 미국·독일 등 열강이 차지한 철도·광산·삼림의 이권에도 반대했다. 이처럼 독립협회는 자주국권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국민의 신체와 재산권의 자유를 위한 인권·민권보장운동을 전개했으며, 의회설립에 의한 국민참정운동을 시도했다.<sup>20)</sup>

1898년 8월 독립협회는 윤치호를 회장, 이상재를 부회장으로 하여 명실상부한 민권과 체제를 갖추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민참정운동과 근대개혁운동을 전개했다. 9월에 일어난 황제독살미수사건을 계기로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계속 열고 관계대신들의 책임 추궁에서 비롯하여, 10월12일에는 수구내각을 퇴진시키고 박정양의 개혁내각을 성립시키는데 성공했다. 미국공사 Allen은 이 사실을 ‘평화적 혁명’이라고 다음과 같이 본국에 보고했다.

“하나의 평화적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대중의 요구에 의하여 거의 전면적인 내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내각개편은 1894년 일본이 한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때에 있었습니다.”<sup>21)</sup>

이어서 10월29일에는 윤치호의 주제 연설로 시작된 官民共同會에서 의회식 중추원의 설치를 내포하는 헌의 6조 곧 국정개혁강령을 채택하여 참가대신들의 서명을 거쳐 황제의 재가를 받았다. 그리고 11월 4일에는 민선 25석, 관선 25석을 규정한

20) 柳永烈, 「獨立協會의 民權運動展開過程」, 『大韓帝國期の 民族運動』 (일조각, 1997) 9~11면 참조.

21) *Communications to the Secretary of State from U. S. Representatives in Korea* : H. N. Allen, No. 152, October 13, 1898, “of Cabinet, Peaceful Revolution, Independence Club” ; *The Independent*, October, 13, 1898, “Local Items”

22) *The Independent*, October 27, 1898, “The Privy Council” ; November 10, 1898, “Molayo’s Account of Recent Event in Seoul” 참조.

근대 의회의 성격을 띤 중추원 관제 곧 일종의 의회설립법이 공포되었다.<sup>22)</sup>

이것은 유리 역사상 처음으로 제한적이거나 국민참정권을 공인한 획기적인 사건이며, 윤치호 지도하의 독립협회가 추진한 의회설립운동의 거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독립협회에서 민선의관을 선출하도록 예정되었다.

그런데 이날 11월 4일 밤, 수구세력은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고 고종을 충동하고, 한편 “李氏 왕조는 천명을 다했으므로 만민이 공동으로 윤치호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뜻을 암시하는 대자보를 붙인 匿名書事件을 일으켰다.<sup>23)</sup> 이로 인하여 독립협회는 혁파되고 그 지도자 17명은 체포되었으며, 박정양의 개혁 내각도 붕괴되고 의회식 중추원의 발족도 무산되고 말았다.

독립협회가 혁파된 뒤, 만민공동회는 일종의 상설단체로 변모하여 체포 직전에 피신한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와 만민공동회 회장 高永根의 지도 아래 집요하게 대정부 투쟁을 전개했다. 만민공동회는 11월 5일부터 50여일 동안 밤낮없이 민중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독립협회 복설, 개혁내각 수립, 의회식 중추원 개설 등을 주장하며 격렬하게 민주주의 정치투쟁을 벌였다. 그러다가 정부의 무력탄압에 의하여 1898년 12월 25일에 독립협회·만민공동회 등 모든 민회활동이 중단되었다.<sup>24)</sup>

이처럼 윤치호는 독립협회의 회장과 민중운동의 최고지도자로서 자주국권의 民族主義運動과 자유민권의 民主主義運動의 기수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윤치호는 ‘을사보호조약 체결이후 대한제국의 자주권이 단계적으로 상실되어갔던 한말에는, 대한자강회의 회장으로서는, 중등학교의 설립자 또는 교장으로서는 국권회복의 장기적인 준비를 위해 실력양성을 강조하는 애국계몽운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 IV. 일제시대의 사회활동

윤치호는 1910년 함방이후 일제가 식민통치의 장애물로 여긴 기독교세력과 민족운동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날조했던 105인사건의 최고 주모자로 지목되어, 가혹한 고문과 3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1915년 봄에 출감했다. 이후 윤치호는 일제의 통치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인식하여, 직접 독립운동에 나서기를 회피하고 한국인의

23) 尹致昊, 「獨立協會의 始終」, 『新民』 제14호(1926년 6월) 59면 참조.

24) 柳永烈, 「獨立協會의 민족운동적 성격」, 앞의 『大韓帝國期の 民族運動』 90-92면 참조.



실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했다. 그러므로 일제시대에 윤치호의 활동은 기독교분야, 교육분야, 사회사업분야가 중심을 이루었다.

먼저 윤치호는 YMCA를 중심으로 기독교운동에 힘껏 노력했다.

그는 이미 미국유학 시절에 YMCA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1890년 밴더빌트 대학 YMCA와 국제 YMCA의 집회에 참석했으며, 에모리대학 YMCA의 대표로 조지아주 YMCA대회에 연사로 참가하기도 했다.<sup>25)</sup> 1903년 한국 YMCA가 창설된 이후 윤치호는 YMCA의 이사 또는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미국인 선교사가 회장였으므로, 사실상 그는 한국인으로서 YMCA의 최고 지도자였던 셈이다.<sup>26)</sup>

합방 후 일제의 무단통치가 자행되던 1916년에서 1920년까지의 어려운 시기에, 윤치호는 YMCA의 총무가 되어 회원 확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강연회·토론회 활동을 활성화시켰다. 당시 윤치호와 이상재, 안창호의 강연은 대중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sup>27)</sup>

합방 후 한국 YMCA는 일본 YMCA에 예속되어 단독으로 세계연맹에 가입할 수가 없었다. 1920년대에 윤치호는 YMCA의 회장으로로서, 1922년에 한·일 YMCA 대표 자회의를 열고 한국 YMCA의 자주문제를 거론하여, 1924년에는 한국 YMCA가 단독으로 세계연맹에 가입하는데 공헌했다.<sup>28)</sup>

그리고 1930년대의 윤치호는 YMCA연합회의의 위원장으로서, 사재를 들여 YMCA의 재정난을 타개하기도 했고, 내부분규를 조정하는 데도 기여했다.<sup>29)</sup>

사실상 윤치호는 한국 YMCA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YMCA의 큰 지도자였다. 그는 YMCA 이외에도 기독교서적 출판기관인 기독교창문사의 설립에도 힘썼고, 조선기독교계 대표자협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기독교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다음으로 윤치호는 교육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미국유학 이래로 기독교선교와 국민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한말

25) *T. H. Yun's Diary*, May 11, 1890; September 19, 1890; February 27-28, 1892; "T. H. Yun's Letter to Dr. Young J. Allen," May 7, 1892 참조.

26)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정음사, 1978) 95·124면 참조.

27) 앞의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225-230면 참조.

28) 앞의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265·281-287면 참조.

29) 앞의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424-426·445면 참조.

에는 자신과 감리교 선교부의 노력으로 개성에 세워진 韓英書院(Anglo-Korean School)의 교장이 되어 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신민회가 평양에 설립한 대성학교의 교장이 되어 민족주의적 근대교육을 실시했다.

일제시대의 윤치호는 “교육이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으며, 더 많은 교육이 더 많은 독립을 가져온다”는 소신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한 한국인의 지적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했다.<sup>30)</sup>

그러므로 3·1운동 직후 이상재가 윤치호에게 미국에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도록 권고했을 때, “미국에 가서 제2의 이승만이 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교육을 돕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sup>31)</sup>

그러므로 1911년 105인사건으로 학교를 떠났던 윤치호는 YMCA 총무직을 마친 1920년에, 한영서원의 후신인 송도고등보통학교의 교장에 취임하여 막대한 사재를 들여 장기적인 학교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sup>32)</sup> 뿐만 아니라, 윤치호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의 이사, 보성전문학교 발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연희전문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면서 이들 학교의 시설확충과 교육진흥에 크게 기여했다.

나아가 윤치호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사회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단체나 개인이 재정적으로 곤란하여 도움을 청했을 때 선별적으로 기꺼이 후원했다. 그는 아산 운봉면 보통학교, 송도고등보통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했고, 여타의 학교·교회·병원의 건축에도 많은 기부금을 회사했다.<sup>33)</sup>

또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의 연구활동과 생활비의 지원, 그리고 해외유학의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윤치호가 유학생의 학비나 여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한다.

30) T. H. Yun's Diary, May 10, 1919 참조.

31) T. H. Yun's Diary, January 3, 1924.

32) 앞의 『좌옹윤치호선생약전』 287-288면 참조.

33) 앞의 『좌옹윤치호선생약전』 296-297면 참조.

34) 車相崑, 「내가 본 尹致昊先生」, 『桴星』1권 2호(1931년 4월).

“첫째는 학비를 구걸치 않는 자에 한한다. 구걸하는 자는 인격이 비열한 때문이다. 둘째는 절반이상을 본인이 준비한 자에 한한다. 남에게 전적으로 의뢰받은 성의가 없는 까닭이다. 셋째로 신학 또는 과학이나 실업을 배우고자 하는 자라야 한다.”<sup>34)</sup>

뿐만 아니라, 윤치호는 나환자구제회와 고아원을 설립하여 이들을 돕고, 매년 발생하는 수재민과 춘궁기에 빈민을 구호하는 활동을 했으며, 중국인학살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평양과 서울에 있는 중국인들의 구호활동과 만주사변으로 조난 당한 재만 동포에 대한 구호활동을 펴기도 했다. 또한 그는 조선체육회 회장으로서는 조선 체육의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sup>35)</sup>

끝으로 일제시대의 윤치호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사실상 정치문제에 말려들게 되었다. 그는 대한제국시대에 민중운동·민족운동의 최고지도자였고, 일제시대에도 기독교계·교육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활약했던 만큼, 민족운동자들도 일제통치자들도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윤치호는 일기에서 총독부를 계모의 정부(stepmother-government), 일제통치를 ‘독일식 군국주의 통치’라 규정하고, 한국에 일본인의 정착을 위한 일제의 한국인 축출정책과 한국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일제의 가혹한 탄압정책을 통렬히 비판했다.<sup>36)</sup>

그러나 그는 “우리가 일본의 통치하에 있는 한 우리는 그 통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실순응의 입장에 섰다.<sup>37)</sup>

그러므로 윤치호는 1920년대에는 각도 조선인대표자회의와 조선인산업대회 등 일제의 통치정책에 이용된 친일적인 단체와 모임에 관여했으며, 만주사변(1931) 직후에는 총독부 주요 관료들과 친일 조선인간의 친목단체인 토요회에도 참여했다. 이 시기까지의 그의 대일 협력은 일제에 강요된 수동적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중일전쟁(1937)을 전후하여 일제의 전시체제가 강화되고, 조선인에 대한 친일 협력이 더욱 강요된 시기에, 70세가 넘은 고령의 윤치호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이사(1940)로 활동했고, 태평양전쟁(1941) 시기에는 조선임전보국단의 고문으로서 학병권유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1945년에 조선인 7명 중

35) 앞의 『좌옹윤치호선생약전』 293~294면 참조.

36) T. H. Yun's *Diary*, December 31, 1929; February 27, 1943 참조.

37) T. H. Yun, “An Old-man's Ruminations (II),” October 20, 1945. 그는 일제의 무단통치 하인 1916년 YMCA 총무 취임연설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와 싸울 때는 같이 칼을 써서 도리어 지고 마는 것이니, 약한 조선민족은 슬기롭게 싸워야 한다.”고 했다.

한 사람으로 일본 귀족원 칙선의원에 선임되기도 했다. 1919년에서 1934년 사이에 연희전문학교의 교수로 재직했던 J. Earnest Fisher는 윤치호가 일본 귀족원의 원직을 수락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로 애국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다.<sup>38)</sup> 이 시기에 윤치호의 친일협력은 일제의 강요에 의한 것이지만, 그의 일기에 보면 자의적인 측면도 보인다.

## V. 맺음말

윤치호에 대한 평가는 양극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윤치호에 대하여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도움으로 몰주체적인 근대화를 이루겠다는, 미·일 숭배주의, 왜곡된 민족의식에 바탕을 둔 근대화지상주의의 산물이자, 보신(保身)에 능한 기회주의의 다른 표현인 철저한 현실순응주의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그는 친일파·반민족 행위자의 영수급이었다.”는 서중석 등의 비판적인 평가가 있다.<sup>39)</sup> 한편 윤치호의 황국신민화운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민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행위였다”는 이광수 등의 평가가 있고, 윤치호는 “105인사건에서 동지들의 항일활동에 책임을 지고, 태평양전쟁 과정에서는 민족의 수난을 덜어보려던 의리의 사람이었다.”고 평가하는 백낙준 등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sup>40)</sup>

개화기 최고의 민족운동의 지도자였던 윤치호가 일제시대에는 왜 친일협력을 하게 되었을까? 그의 친일협력의 소지를 몇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로 그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고 항상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 아니면 차선의 방법을 찾은 현실상황론자였으므로 일제통치에 순응할 소지가 있었다.<sup>41)</sup> 둘째로 그는 강경한 급진적 혁명론자가 아니었고 온건한 점진적 개혁론자였으므로 일제

38) J. E. Fisher, "Yun Tchi-ho II, D." *Pioneers of Modern Korea*,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7, 287면 참조.

39) 徐仲錫, 「윤치호 : 근대화 지상주의와 皇民化 운동」, 『쟁점 한국근현대사』 2, (한국근대사연구소, 1993) 209면.

40) 徐仲錫, 위의 글, 214면 참조.

41) "T. H. Yun's Letter to Dr. Young J. Allen," January 24, 1891 ; December 12, 1905 참조. 그는 1905년 12월 12일자 서신에서 "I believe that Korean must take the situation that is imposed on them and make the most of it." 라고 쓰고 있다.

42) "T. H. Yun's Letter to an Anonymous Person," June 5, 1885 ; *The Independent*, November 1, 1898, "An assembly of All Castes" ; *T. H. Yun's Diary*, November 13, 1898 참조.

와 타협할 소지가 있었다.<sup>42)</sup> 셋째로 그는 당시 한국의 개화와 독립이 상당기간 동안 절망적이라고 보는 비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일제통치를 인정할 소지가 있었다.<sup>43)</sup> 넷째로 그는 105인사건에 의한 가혹한 고문과 3년간의 옥고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지를 상실하여 일제통치에 순응하게 되었다.<sup>44)</sup> 다섯째로 그는 일제에 대한 저항보다 선교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일제통치 하에서 선교활동과 교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친일 협력을 피하기는 어려웠다.<sup>45)</sup>

윤치호는 일제시대에 기독교활동과 교육활동을 통하여 나름대로 민족의 실력향상에 노력을 기울였다. 일제는 한국인의 혼을 말살하고 한국 기독교를 유린하기 위해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당시 숭실전문학교는 이를 거부하고 순교적 자세로서 폐교를 감수했다. 그런데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등 많은 학교들은 2세 교육을 위해 신사에 참배하고 살아 남았다. 이처럼 신사참배 하고 살아 남은 학교들이 결국 민족에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이들 학교의 유지 발전에 노력한 윤치호, 김성수, 김활란 등을 친일협력자라고 일반적으로 매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유명인사들은 일제의 견딜 수 없는 탄압으로 거의 다 친일협력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들을 모두 민족반역자처럼 매도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국내에서 활동했던 유명인사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속한 그룹과 관련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곧 어느 지도급 인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민족지도자로 인정하는 이상재 또는 조만식의 그룹에 속했다면 그에게 다소 흠이 있었다 해도 민족지도자의 범주에 넣고, 골수 친일파인 이완용 또는 민원식의 그룹에 속했다면 민족반역자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대인들은 윤치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43) "T. H. Yun's Letter to Young J. Allen," January 24, 1891; *T. H. Yun's Diary*, October 8, 1898; March 6, 1904; July 11, 1904; November 18, 1905 참조. 윤치호는 1898년 10월 8일 일기에서, "나는 수치스러운 조선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현 왕조 하에서는 개혁의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고 했고, 1904년 5월 6일 일기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황제나 비굴하고 부패한 대신이나 완전히 죽은 대중에게서도 한국의 장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고 했다.

44) 鮮于燾, 『民族의 受難—105人事件의 真相』(독립정신보급회, 1955) 24·103·105·109면; 『매일신보』 1915년 3월 14일자; 李光洙, 「규모의 人 尹致昊氏」, 『이광수집』 17(삼중당, 1962) 383면 참조.

45) *T. H. Yun's Diary*, May 10, 1919; January 3, 1924 참조.

독립협회의 주요 회원인 김락집은 “어떤 사람은 윤치호를 ‘근대의 현인(modern sage)’으로 생각한다”고 했고,<sup>46)</sup> 역시 독립협회의 주요 회원인 최경환은 민회지도자 중 고영근(만민공동회 회장)의 추종자는 6명 내외, 이상재의 추종자는 10명 내외, 윤치호의 추종자는 40명 이상이라고 추산했다.<sup>47)</sup> 3·1운동 당시 33인 중의 한 사람이고 독립협회의 막후 실력자였던 이종일은 윤치호를 “신망 있는 인사이며 민권운동의 기수”라고 평가했다.<sup>48)</sup>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제시대 윤치호의 친일협력에 대하여, 이광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민족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행위”라 평가했고, 백낙준은 “태평양전쟁 과정에서 민족의 수난을 덜어보려던 행위”라고 평가했다.<sup>49)</sup>

일제시대의 윤치호는 이상재, 안창호와 더불어 계몽 연사로서 대중적 인기를 얻은 인물이었고, 종교계와 교육계의 큰 지도자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친일 협력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이었다.

우리는 어느 역사적 인물을 하나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되며, 그의 功過를 아울러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

46) T. H. Yun's Diary, November 4, 1898 참조.

47) T. H. Yun's Diary, January 23, 1899 참조.

48) 李鍾一, 「點菴備忘錄」 1898년 6월 11일조 (『韓國思想』 16, 한국사상연구회, 1978) 참조.

49) 주 40과 같음.

참고문헌

- 『尹致昊漢文日記』 1884년.  
 『承政院漢文日記』 1898년.  
 『독립신문』 1898년.  
 김영희, 『좌옹윤치호선생님약전』, 좌옹윤치호문화사업회, 1999.  
 유영렬, 『開化期の尹致昊研究』, 한길사, 1985.  
 유영렬, 『大韓帝國期の民族運動』, 일조각, 1997.  
 尹致昊, 「獨立協會의 始終」, 『新民』 14, 1926.  
 尹致昊, 「風雨20年 - 韓末政客의 懷古談」, 『東亞日報』, 1930.  
 鮮于燠, 「民族의 수난 - 105人事件의 眞相」, 독립정신보급회, 1955.  
 이광수, 「규모의 人 尹致昊氏」, 『이광수전집』 17, 삼중당, 1962.  
 李鍾一, 「默菴備忘錄」, 『韓國思想』 16, 한국사상연구회, 1978.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정음사, 1978.  
 車相崑, 「내가 본 尹致昊先生」, 『彗星』 1-2호, 1931.  
 徐仲錫, 「윤치호: 근대화 지상주의와 황민화」, 『쟁점 한국근현대사』 2, 1993.  
*Communications to the Secretary of State from U. S. Representatives in Korea*: N. H. Allen, No, 152. 1898.  
 Lak-Geon George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932-1910*, Union Christian College, Pyongyang, 1927.  
 F. A.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Reprinted by Yonsei Univ. Press, 1969.  
 J. E. Fisher, "Yun Tchi-ho LL.D." *Pioneers of Modern Korea*,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7.  
*Tchi-ho Yun's Letter, 1880s-1900s*.  
*Tchi-ho Yun's Diary, 1890s-1940s*.  
 Tchi-ho Yun, *An Old-man's Ruminations (II)*, 1945.  
*The Independent*, 1898.

〈後 記〉

위의 「開化知識人尹致昊의 사상과 활동」은 2002년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토론자인 박정신 교수의 네 가지 질문의 요지와 이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의 요지를 참고로 게재한다.

〈질문 1〉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은 제국주의 팽창의 이념적 논리적 토대였는데, 이들 제국주의 팽창에 반대했던 조선의 지식인 윤치호 등은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적자 곧 강자가 되기 위하여 실력양성론을 주장했다. 그 침략세력의 이념을 저항세력의 이념으로 받아들인 자체가 침략세력과 타협할 수 있다는 우리 학계의 좌파적 시각이 있는데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은 분명히 '강자의 약자 지배논리'이다. 그러나 한말의 많은 민족운동자들은 사회진화론을 약자가 분발하여 강자 곧 적자가 되어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약자의 강자화의 논리'로 활용했다.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민족운동자들 가운데 합방 후 일제와 타협한 사람도 있지만, 이동휘·신채호처럼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실력양성을 주장한 많은 인사들이 항일 투쟁노선을 견지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질문 2〉 윤치호의 온건 점진 개혁론과 현실 상황론이 그로 하여금 일제시대에 친일 타협적 지식인의 길을 걷게 했다면, 현실주의자나 온건 점진론자는 다 타협의 길을 걷는 지식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 강경 급진 개혁론자 또는 이상주의자는 현상타개의 방법으로 투쟁을 택할 가능성이 많고, 온건 점진 개혁론자 또는 현실주의자는 타협을 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온건하고 현실주의적 입장에 서있다고 보여지는 인사 중 윤치호·이광수 등은 타협의 길을 택했지만, 안창호·조만식 등은 비타협적인 길을 택했다.

〈질문 3〉 기독교적 역사관은 정의와 불의의 대결 마당에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는 예수의 말처럼,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와 싸우는 입장이다. 일제시대라는 대결·쟁투의 시대상황에서 윤치호의 타협적 처신을 볼 때



그를 기독교 지성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기독교 지식인으로서 윤치호는 ‘힘이 정의’라는 강자의 논리인 사회진화론과 ‘정의가 힘’이라는 약자의 논리인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었는가?

〈답변〉 예수의 가르침이 항상 불의한 강자와의 투쟁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예수도 “가이자의 것은 가이자에게 주라”고 하여 강자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오히려 기독교는 투쟁보다 부드러움을 통하여 강자를 이기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을지도 모른다. 일제시대의 윤치호는 ‘正義가 힘’이라고 보는 기독교적 사랑의 윤리와 ‘힘이 正義’라고 보는 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 사이의 모순 속에서 심한 갈등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도덕·종교·지성 면에서도 약소국의 사회보다 강대국의 사회가 비교적 더 우월하고 정의롭다는 생각에서 비교적으로 보아 ‘힘이 정의’라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약소국 사회에서보다 강대국 사회에서 인간이 더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질문 4〉 윤치호를 민족주의자 또는 기독교 민족주의자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계주의적 보편주의의 논리에 서있고, 민족주의는 개별국가 중심의 ‘특수주의’적 논리에 서있어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 과연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것이 성립 가능하겠는가?

〈답변〉 민족주의란 민족 집단과 민족 구성원의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민족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특수주의’적 논리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 지나치게 민족국가의 이익에 경도될 때 전쟁을 도발하고 결국 자기 민족도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E. H. Carr는 진정한 민족주의(nationalism)는 세계주의(internationalism)와 악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일제 말기의 사학자 손진태는 ‘민족의 참된 행복’ 그리고 ‘인류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新民族主義를 제창한 바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기독교가 세계주의적 논리에 서있고 민족주의가 ‘특수주의’적 논리에 서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결합하여 ‘기독교 민족주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